



5면

전주 천마지구 개발사업 본격화

2023년 7월 11일 화요일(음 5월 24일) 제3302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습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흥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특자도 도민 공감대 한층 'UP'

전북도, 도민 소통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 결과

시·군 대상으로 진행… 지역 밀접 특례 조항 중점 설명
 향후 도민 소통 지수 향상 위해 설명회·홍보 전개키로

전북특별법 개정안 입법화 노력과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전북도가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연구원과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 까지 14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눠 총 8회에 걸쳐 시·군민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 5월 정부에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한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체계 및 개정안 설명,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사항, 출범 기념행사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도는 총 282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

부개정안에 대한 법안체계와 전체 법안 조항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주요 특례 조항인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수소특화단지 지정, 케이팝국 제교육도시 지정, 신의원광특구 조성 등도 소개했다.

특히 시·군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인 만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각 시·군과 밀접한 특례 조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또한, 행정구역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른 공공과 민간 부문의 이행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특별자치도민으로서 일체감을 높이고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군 행사, 전야제 및 출범식의 추진방향도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요청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과의 소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와 토론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미래 변화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도민의 관심과 지지가 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의 원동력인 믿음 희망적인 변화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부처가 참여하는 세미나·간담회 등으로 제출 개정안의 정부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오는 13일 열리는 1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창업'으로 '창대'하게

전북 창창자문단 위촉

국내 최정상급 민간투자사
 창업정책가 등 전문가 영입
 창업생태계 큰 반향 전망

국내 최정상급 민간투자사, 창업정책
 가 등 전문가 33인 전북도 창업정책
 자문단으로 영입됐다.

전북도는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넓혀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 역동적인
 창업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을 높여 나
 가고 있다.

도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라북
 도 창업정책의 자문을 위한 '전북도 창창자문단'(창업으로 칭대 해지는 전북) 위촉식에 김관영 도지사
 를 비롯한 국내 최정상급 민간투자사, 창업정책가 등 전문가 33명이 위촉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북도 창업정책의 자문을 위한 '전북도 창창자문단'(창업으로 칭대 해지는 전북) 위촉식에 김관영 도지사
 를 비롯한 국내 최정상급 민간투자사, 창업정책가 등 전문가 33명이 위촉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창자문단은 각계 각종 전문가와
 함께 '창업'으로 '창대' 해지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위촉식에서는 김관영 지사가 자문위
 원에게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전북도 창
 업정책을 설명하고 자문위원들의 의
 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북도 창업정책의 자문을 위한 '전북도 창창자문단' (창업으로 칭대 해지는 전북) 위촉식에 김관영 도지사
 를 비롯한 국내 최정상급 민간투자사, 창업정책가 등 전문가 33명이 위촉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로는 수도권 등에서 활동
 하는 민간 투자사, 지원기관, 학계, 법
 조계 등 풍부한 학식과 창업 관련 경
 험을 보유한 전문가 33명이 위촉됐다.

이는 고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창
 업생태계를 리드하는 현장 플레이어
 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감 있는
 창업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
 최정상급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

함에 따라 지역 창업생태계에 큰 반향
 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김관영 지사의 인맥
 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국내 최고의

개했다.

△1조원 규모의 창업펀드 조성, △스
 타트업카운 조성 등 창업인프라 구축,
 △수도권의 창업지원기관과 VC, AC를
 아우르는 창업 네트워크 구축, △해외
 스타트업 유치가 바로 그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창
 업분야 전문가들이 전북과 함께한다"

며, "앞으로 창창자문단을 통해 창업
 혁신의 삶이 있는 목소리를 들으며 창
 업환경을 혁신하고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평가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취재기자(본사)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지역주재기자(원주)	"	"

▲ 접수기간 2023년 7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출하지 않습니다)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총무팀)

전 주 매 일

오늘부터 3일동안 정부 합동 새만금잼버리 2차 안전점검

태풍 등 주요 자연재난 대응체계·배수로 정비 등 현황
 대중 인파 사고 대비 분산대책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를 대비해 정부 합동 2차 안전점검을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청소년(만 14~17세) 4만8,0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 행사인 세계잼버리의 규모와 위상 등을 고려해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3월 1차 점검에 이어 안전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안부, 여가부, 문체부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유관 기관 등 총 26개 기관에서 담당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점검 담당자가 참여하며, 수자원·토질·의료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도 점검관으로 같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태풍·호우·강풍 등 주요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및 배수로 정비 등 현황, △대중 인파 사고 대비 분산대책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각종 기반시설 및 체험시설의 안전 확보 여부, △식중독 예방 및 방제 상황 등이다.

해당 분야별 점검을 통해 향후 보완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발굴하고, 짧은 기간 내에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조치하도록 해 얼마 남지 않은 행사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또한 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조치사항도 행사 전까지 완료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 등을 통해 행사 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최창행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행사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한 가지가 안전 확보 여부"라며, "이번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진단과 보완 조치를 통해 안전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